

## 時急한 無免許 診療 賣藥行爲의 團束

京畿道獸醫師會 常務理事

鄭 益 鎔

우리自體의 後進性을 저급의 肯定함을 道理가 없을 것 같다.

나는 數年동안 主로 農村臨床獸醫師들의 實情을 實地踏査하면서 많은것을 보고 듣고할 機會를 갖었다.

要望이 많았다. 그때그때에 나 自身의 힘으로 되는 것은 그런것 내로 卽刻, 또한 當局에 反映시켜야 할 것은 그런것대로 滿足하지는 못하나마 힘이 미치는데로 서로가 意慾을 가지고 解決해왔었다.

그러나 甚히 부끄러운 일이나 오늘까지 束手無策으로 거어 治外法權의인 存在價値를 우리 스스로가 許與한채 放任하고 있는 事實이었다.

그렇다고 아주 시원스럽게 宿命의存在인양 諦念해버린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언제까지나 虛望하고 無氣力한 「병어리녕 가슴앓기」에만 끄칠것이 아니라 이젠 本分들의 絶叫을 하나의 焦點으로 集結시켜 어떤 具體的인 行動性을 띄게 해야 하겠고 꼭 무슨 요질을 '내어야만 되겠다'고 느끼는 것이다.

正常的인 診療 活動에의 障害랄까 臨床收入 低調의 主된 盲點으로 겨누어지고 있는것에 漢方的 쇠침쟁이 및 現代版쇠침쟁이 (單期訓練등을 거쳐서 初步的인 現代的 法療法을 알고 있는 農村青年)의 跋扈와 飼料商들의 添加劑限界를 踏고 넘어선 賣藥行爲등을 들수있다. 왜 우리는 우리의 領域을 公然히 侵害 當하면서도 座視한채 平년만하고 있는 것일까 『한고장안에서 차마 어찌 肯發할수야 있느냐』고 하는 딱한 心情은 且置하고 라도 우리 自身의 臨床戰術에는 盲點이 없다고 볼것인가

여러모로 收支打算이 가득히나 逼迫해 졌으며 거기에 雪上加霜으로 家畜保健知識과 現代的經濟觀念이 薄弱한 養畜家들을 相對로 上記한 바와같이 無免許診療 및 賣藥業者들이 날개를 돋고 있을때 우리는 免許狀만을 無敵의 寶刀로 삼고 化學的的方式의 調劑室에 妖

術捕같은 카-텐을 쳐두는 것으로써 어슬렁 어슬렁 넘어 갈수 있다고 생각할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斷然로 守勢的姿勢에 終止符를 찍고 積極的攻勢의 進勢에로 一大轉換을 마련 하여야만 한다.

于先 우리 스스로의 周邊에서 打診이나 聽診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손쉽게 해치 우려는데서 소의 腹水を 妊娠이라고 誤診하는 따위의 웃지 못할 例들을 빚어 내고 있는 所謂『만년된 수의사』라는 그런자를 完全히 趕어치우기 위하여 더욱 理論 및 技術의 水準提高에 邁進할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우리의 知識에 獨占的 카-텐을 치지말고 널리 開放하여 養畜家들에게 現代化된 家畜保健知識을 注入시켜 目前的 昏頓을 따질것이 아니라 어느 療法이 終局的으로 더 그들을 利롭게 하여 주는 가를 넓고 妥善한 經濟的 視野를 가지고 分別할수 있도록 具體的 事實을 들어 꾸준히 啓蒙해주어야 할 것이고 特別히 漢方的 쇠침쟁이 處方的 神祕의 베일을 벗겨치우기 위하여서는 그에 對한 盲目的인 敵對視나 攻擊보다는 細密한 科學的 批判을 통한 自然凋落消滅의 方向을 꾀하는 同時에 워낙 오랜 時日에 걸쳐 끈덕지게 存在해오던 것인만치 當局의 非常的強力措置도 併行發動되어야 할 것이다.

農村臨床獸醫師 들에게는 이미 눈익은 故事 비슷히 되어 있는 쇠침쟁이들의 處方을 여기 새삼스럽게 羅列할 必要는 느끼지 않으나 地方的 多樣性도 若干 있을 것이라 앞으로 이 拙稿를 契機로 좀더 各地方 會員들로부터의 論難과 經驗交換이 提起되어야 하겠다는 것과 學校나 研究機關들에서도 이런 非科學的 處方이 招來하는 諸被害의 具體的 資料를 臨床獸醫師들에게 提示하여 그들이 보다더 날카로운 理論的 根據를 가지고 쇠침쟁이 掃蕩의 攻勢에로 나갈수있도록 重大한 契機를 마련 해줄것을 念願하는 見地에서 甚히 忝스러우나 여기 그 몇가지 實例들을 들어 보기로 한다.

大體로 下劑, 止瀉劑, 疝을 包含하는 神經刺戟 및 放血療法, 疝疔, 外傷處理를 主眼한 消毒, 消炎, 發汗劑

등을 들수있다.

(一) 첫째 下劑로:

①배지기를 ②들깨죽 ③상나무열매에 燒酒를 混合한 것등을 쓰는데, 이는 주로 鼓脹症을 말하는 「동그래」(헛배)라고도함)에 많이 쓰이는데 大體의 境遇 소가 먹이를 尠廢하기만 하면 千篇一律的으로 于先 이方法이 適用된다는 模倣이다. 이 中에서도 特히 배지 기름의 境遇는 痼疾的인 惡影響이 눈에 보일 程度로 부엌한테 아레르기 性分이 잔뜩드러간 後에는 大體로 酸性인 消化劑를 投與하여도 中和해버려 尠히 藥効가 나타나지를 않아 胃腸을 汚染하며 胃癰腫을 이르고 급기야는 瀉便通까지 온다는 것이다.

(二) 둘째로 止瀉劑안데:

①술눈, ②굴참나무껍데기 ③치자등을 搗いて 上記한 下劑나 止瀉劑는 모두 其投與에 있어서 가메메의 使用이란 勿論 緣木求魚格이고 保定도 제대로 않은데로라. 목이 45度角으로 될수도 없는지라, 藥物이 氣管枝로 흘러내려가서 汚染性肺炎등을 터무니 없는 臆物로 받는다. 어떤 臨床獸醫는 쇠침정이가 들깨죽을 잔뜩먹인 後에 卽死했다는 소를 剖檢한 結果 氣管枝 및 肺에 가득찬 들깨를 發見한 일도 있다 한다.

(三) 셋째로 침과찜질안데:

많이 쓰이고 있으며 또 部分的이기는 하나 効果를 보는것도 없지않다.

肋間骨이나 前肢關節에 놓는침, 코에 놓는침, 오줌에 적신옥을 불에 달군조미로 배에대고 하는 點灸等屬인데 이는 勿論 말국질 神經을刺戟시켜 방귀를 끼게하고 가스를 排出시키게 하며 땀을 내게하는 等に 도움을 준다.

그렇나 어디까지나 이것들을 根本療法으로 認識이 굳어 버려있는게 골치꺼리인 것이다.

이 외에도 썩은질을 태워 소의코에 其煙氣를 드리키게 한다던가 소의兩측를 붓잡아대는 것도 있다.

(四) 넷째로 外傷이나 皮膚炎 等屬의 處方안바:

①石油(진드기에쓰임) ②黃土흙에 세가지 풀을섞어서 收斂止血에 쓰는데 ③火傷等에 쓰는 된장, 간장, ④오줌(암모니아의 藥効) 등이 있는데 이모두가 다 尠히 科學的根據가 虛無한것은 아니로되 어디까지나 初步的이고 部分的인 對症療法에 지나지 않는것을 根本療法으로 알고 泰然한 것이 놀라운 일이 不일수없다.

이 외에도 人후루엔자에 쌍화탕을 搗이는 等이 있으

며 무당의 巫毒거리에 이르러서는 아주 두손을 들고 말아야 한다.

科學的 雜診을 거치지않기 때문에 가령 熱性疾患으로 招來된 便秘도 모두 끝끝내 「동그래」로만 對하다가 소를 요절내고 말며 雪上加霜으로 그것도 投與量이나 投與方法에 있어 엉망인것에 있어서라.

이러고 보니 구이면 구 고스라니 우리 臨床獸醫들 의 손에 넘어 왔을때는 이미 거의다 주들러터트려 놓은 감으로 化하여 難治인 것은 더 말할나위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未然에 防止할수 있는 畜主들의 損失을 (그것은 비단 斃死뿐만이 아니라 完治期間의 延長됨으로 해서 높아지는 藥代나 甚至於는 使役面에서 오는 損失等은 까마득하게 珠算밖에 내동댕이 쳐버리고 있다.) 그들도 尠히 모르는 때아니건만 매양 이렇게 祖上代代로 물려받은 習性을 되풀이하고 있는데는 당장 눈앞의 浬돈이 아쉬운 우리 農村의 零細性에도 나 무라기만 할수없는 딱한 原因이 있었으나 적게는 家畜 保健知識과 現代化된 經濟觀念의 不足에 基因하고 크게는 우리 後進農村社會의 安逸性 保守性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農村臨床獸醫들은 先進國家社會에서 의 獸醫師들보다 한층더 卓越한 臨床技術者이자 遠大한 展望과 艱忍한 精力을 갖고 구준히 啓蒙해나 가야할 改革者라야 할것이 提起된다.

더우기 앞으로의 畜產物 國際交易面의 趨勢를 보거나 國內畜畜의 收支展望을 擔擔大路로만 構想할수 없는 것이니 赤字養畜을 免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治療費 等屬의 削減策을 强要當할 것이니 自然히 上記한 손쉬운 浬돈 方法들이 끈덕지게 出沒할 것이거나 또 한 편으로 오만한 것뿐 不是 初步的 家畜疾病常識 있는 專業家이던 「선무당집안당치」건 말건 獸醫師들의 손을 거칠것도 없이 賣藥行爲를 하는 飼料商으로 다름박질 하게 될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기에 農村臨床獸醫들은 自體技術이 誇示와 診療收入의 滿足에만 自慰하지 말것이며 더더구나 쇠침정 等屬에 對해 병어리 냉가슴없는 格의 非難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어떤 機會를 通해서라도 個別的으로 或은 群象的으로 農民들을 깨우쳐 주어야하고 特히 上記한 非科學的處方으로 因하여 받는 具體的이며 計數的인 損失等 實例를 들어가면서 解說해주어야 할것 이다.

(14頁하단계속)

- ips, P.B. Hamilton, V.P. Dole, R.M. Archibald, R.M.: J. Biol. chem. 183: 331, 1950
4. Koppanyi, T.: Science 82: 232, 1935
5. Linegar, C.R., Dille, J.M. and Koppanyi, T.: J. Pharmacol. & Exper. Therap. 58: 128, 1936
6. Bonnycastle, D.D.: J. Pharmacol. & Exper. Therap. 75: 18, 1942
7. Courtice, F.C.: J. Physiol. 102: 290, 1943
8. Gregersen, M.I.: Am. J. Med. 15: 785, 1953
9. Carr, D.T. and Essex, H.E.: Am. J. Physiol. 142: 40, 1944
10. Hahn, P.F., Bale, W.F. and Bonner, J.F.: Am. J. Physiol. 138: 415, 1942
11. Hausner, E., Essex, H.E. and Mann, F.C.: Am. Physiol. 121: 387, 1938
12. Gruber, C.M.: Am. J. Obst. & Gynec. 33: 729, 1937
13. Roth, G.B.: Arch. Internat. Pharmacodyn. 51: 170, 1935
14. Johnson, R.L.: J. Pharmacol. & Exper. Therap. 57: 353, 1936
15. John G. Wright.: Veterinary anesthesia 4th Edition

### Abstract:

#### The Influence of Pentobarbital on the Cardiac Output.

The influence of pentobarbital sodium on the central nervous system has been studied extensively, but its effects on other systems have not received as much attention. In spite of the fact that vast amount of cardio-vascular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dogs with a background of pentobarbital sodium anesthesia.

The work reported herein was undertaken to study the effect of pentobarbital sodium anesthesia on the cardiac output.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work are as follows.

- 1). Cardiac output fell progressively during the period of observation.
- 2). Exception of the brief period during induction mean blood pressure did not deviated markedly from that of the unanesthetized animal.
- 3). The fall in hematocrit during the period of induction was partially recovered slowly but steady.
- 4). Plasma proteins decreased in concentration, while plasma valums showed a slight increase.
- 5). The author came to the conclusion that a severe decrease in cardiac output occurs under continuous pentobarbital anesthesia in the dog. while the mechanism responsible for this fall has not been elucidated, it appears likely that a direct action on the myocardium may be involved.

#### (59頁하단 계속)

그렇기 위하여서는 때로는 그들의 딱한 實情의 眞正한 벗이 되어야하고 農業經濟解説者도 되어야한다.

이점이 바로 人醫나 都心地 臨床獸醫師 들과는 다른 우리 農村獸醫師들의 二重三重의 深刻한 苦衷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할것다.

그리고 特히 農村臨床獸醫師들의 立場에서 이機會에 懇切히 支援을 呼訴하고 싶은것은 行政當局 特히 一線

農村 指導機關에 從事하는 會員同志들도 養畜家들에 接할때마다 上記한 後進性을 하로빨리 克服하도록 陰으로 陽으로 解説指導하여 주기바라며 司直當局은 人命에의 被害가 아니라하여 等閑視할것이 아니라 所定法에 依하여 無免許 診療 및 賣藥行爲에 斷乎한處罰의 本보기를 따끔하게 보여주시기를 바라는바이다.